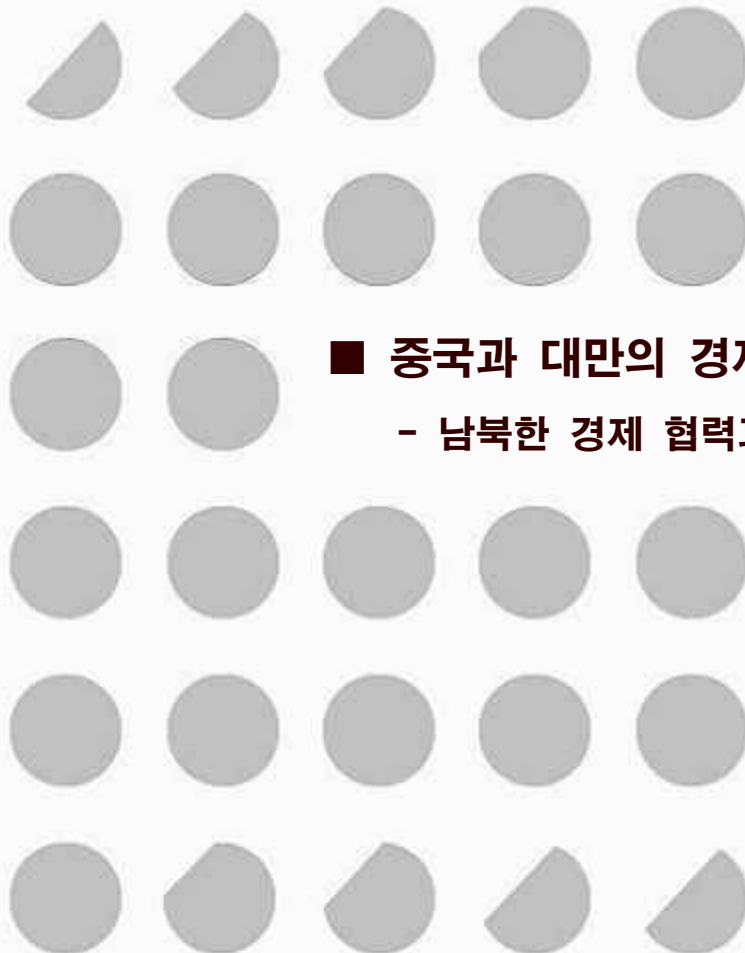


#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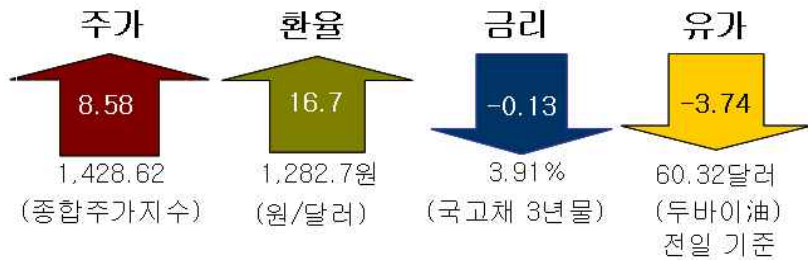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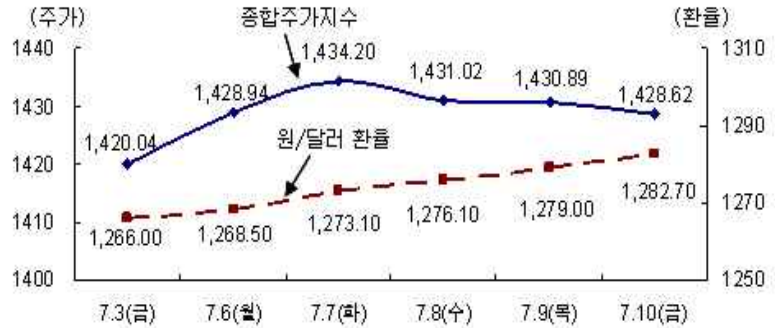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화와 시사점  
- 남북한 경제 협력과 상생을 위한 교훈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3~7.1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화와 시사점	
	- 남북한 경제 협력과 상생을 위한 교훈	1
	주요 국내외 경제 지표	1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김 민 정 연 구 위 원 (3669-4457, kimmj@hri.co.kr)  
                       : 임 희 정 연 구 위 원 (3669-4031, limhj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화와 시사점

#### - 남북한 경제 협력과 상생을 위한 교훈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 중국(China)과 대만(Taiwan)이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양안 관계의 정경분리 원칙 등에 따라 중국과 대만의 정치체제는 다르게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통합 배경) 중국과 대만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첫째, 양안의 교역은 급속도로 증가 추세이다. 대만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6년 6억 2,100만 달러(대만 총수출의 0.5%)에서 2008년 637억 7,100만 달러(26.2%)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 대중국 수입도 30억 6,100만 달러(대만 총수입의 3.0%)에서 300억 5,100만 달러(13.1%)로 증가하였다. 둘째, 중국과 대만간 투자 규모도 급증 추세다.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1998년 약 20억 달러에서 2007년 99억 달러를 넘었다. 중국의 대대만 투자는 중국기업의 대만투자 허용 등으로 증가가 전망된다. 셋째, 양안의 인적교류는 확대되고 산업협력도 증대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협력 배경은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안의 경제 협력은 상호 이익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양안의 신뢰 구축에 의한 분쟁 해소를 통해 정치적 안정 추구하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안보적 측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환경공중보건 등 사회분야의 협력을 통해 양안의 실질적 통합을 추구하고자 한다.

(중국·대만 통합화의 파급 영향) 세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째, 양안의 경제협력으로 중화권의 실물 경제 위상이 상승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GDP는 1993년 8,443억 달러에서 2008년 4조 7,94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비중으로는 1993년 5.73%에서 2008년 12.47%로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 2위인 일본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둘째, 중화 경제권외 지역의 궁핍화와 아시아 지역 통합화가 진전되는 것이다. 셋째, 중국과 대만의 금융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외환보유고는 2조 2,663억 달러로 세계 1위 수준이고 미국 채권 보유액은 1조 3,547억 달러로 총 미국채권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대중국 시장에서의 한국의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양안간 ECFA(경제협력기구협정)체결로 관세인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2개 품목 중 광학장치와 기구, 석유화학, 전기장비, 통신장비 및 부품 등 관세율이 높은 제품이 중국의 대만제품에 대해 관세인하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셋째, 중국의 투자 자금과 대만의 기술 결합으로 상대적으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되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품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다. 넷째, 중국이 무역 거래시 위안화 결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으며 한·중 통화스왑도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금융의 대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시사점과 대응 과제) 한국의 경제 위상 악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차이완의 대두에 따르는 대응과제는 첫째, 이를 위해서는 품목 차별화 및 부가가치 제고로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강화, 녹색 경제 경쟁 우위 확보, 한·중 FTA의 체결 등을 통해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남북 협력 강화로 중·대만 협력의 피해를 상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안 협력과 마찬가지로 정경분리 원칙 등에 기초하여 남북 협력을 강화해 정치·사회·안보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 <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화와 시사점 >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화	
<b>중국과 대만 경제 통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 대만의 협력 강화로 차이완 시대에 대한 관심 고조</li> <li>· 중국과 대만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되어 가고 있음</li> </ul>

중국과 대만의 경제 협력 통합과 배경	
<b>중국과 대만 경제 협력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 분야 : 대만의 대중국 수출액은 '96년 6억 2,100만 달러 (대만 총수출의 0.5%)에서 '08년 637억 7,100만 달러 (26.2%)로 급증</li> <li>- 투자 분야 :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1998년 20억 달러에서 2007년 99억 달러로 증가</li> <li>- 양안의 인적 교류와 산업 협력 증대</li> </ul>
<b>협력 증대 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측면 : 양안의 경제적 상호 이익 추구</li> <li>- 정치·외교적 측면 : 정치적 안정과 대외 이미지 제고</li> <li>- 사회·안보적 측면 : 안보 불안 해소와 사회적 통합 기대</li> </ul>

파급 영향	
<b>세계에 미치는 영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위상 급상승. 중국·대만 GDP 규모 미국의 33.7% 수준</li> <li>- 중화 경제권외 지역의 궁핍화와 아세아 지역 통합화</li> <li>-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미국 국채 보유로 금융 영향력 증대</li> </ul>
<b>한국에 미치는 영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국 수출 경쟁력 약화</li> <li>- 양안간 관세 인하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수출 급감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2개 품목 중 광학장치와 기구, 석유화학, 전기장비, 통신장비 및 부품 등 관세율이 높은 제품이 양안간 관세 인하로 큰 피해 예상</li> </ul> </li> <li>- 양안의 기술, 산업 협력으로 한국의 산업경쟁력 약화</li> <li>- 위안화 결제, 한중 통화스왑 증가 등으로 금융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li> </ul>

시사점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 수립이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차별화 및 부가가치 제고로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강화</li> <li>· 한국·대만 FTA의 체결을 통해 차이완 경제 시대로 인한 수출 감소분 만회</li> </ul> </li> <li>- 남북 협력 측면에서는 남북한 상생 경제 체제 확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안과 같이 정경 분리 원칙 등에 기반한 남북 경협 증진으로 차이완(중국+대만)의 피해를 극복</li> <li>·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한 정치·외교·안보상의 안정성 제고</li> </ul> </li> </ul>	

## I. 중국과 대만의 경제 통합화 - 차이완의 형성

### ○ 차이완(Chiwan) 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 **(의미)** 차이완(Chiwan)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중국(China)과 대만(Taiwan)이 통합되어가는 것을 뜻하는 새로운 지역 개념임
  - **신조어 조합** : 차이완(Chiwan)이라는 신조어는 중국(China)과 대만(Taiwan)의 영문자 중 중국의 첫 알파벳 3개와 대만의 마지막 알파벳 3개를 합쳐서 만들어 졌음
  
- **(차이완의 부문별 의의)** 이는 경제적, 산업적, 정치적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경제적 측면** : 양안 관계의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중국과 대만의 정치체제는 다르게 유지하면서 경제 협력을 추진하라는 의미
  - **산업적 측면** : 대만의 기술역량과 중국의 생산역량의 결합
  - **정치적 측면** : 궁극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조 아래 중국 사회주의제도와 대만 자본주의제도의 공존을 의미
  
- **(차이완의 중요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정치 및 경제 부문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반면 중국과 대만의 협력이 증가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 확대 예상
  
- 특히 중국, 대만과 경쟁과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 전략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 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II. 중국·대만의 경제 통합과 배경

### 1. 중국·대만 경제 협력 현황

#### 1) 경제 협력 발전 단계

- 중국과 대만은 1970년대 이후 4단계를 거치며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 시켜옴
- 1단계(1979~1986년) : 양안의 경제 협력의 초기 단계
- 2단계(1987~1995년) : 경제 교류가 확대되는 시기로 투자와 무역 모두 증가
- 3단계(1996~2000년) : 정치적 긴장 및 투자 규제 강화 등으로 양안간 교역의 성장세가 둔화됨
- 4단계(2001년~현재) :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등 경제 교류가 확대되어 2009년 현재 안정적 교류 단계라 할 수 있는 수준에 진입<sup>1)</sup>

< 중국과 대만의 경제 교류 시기별 추이 >

시 기	주 요 내 용
1단계 : 경제교류 탐색기 (1979~1986년)	- 양안의 경제 교류의 시작 단계로 중국의 삼통 정책 실시에 대해 대만은 삼불 정책과 삼불 원칙으로 대응함
2단계 : 경제교류 증가 (1987년~1995년)	- 대만 정부의 계엄령 해제와 제3국을 통한 방문 허용, 중국 정부의 대만 기업 우대정책으로 양안 간 경제교류가 크게 확대됨 - 대만의 대중 투자는 1995년에 전체 투자의 40%를 넘어서고, 양안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37.3% 증가
3단계 : 정치적 긴장 고조 투자규제 강화 (1996년~2000년)	-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의 방미와 대만 통일 주장으로 양안 정치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전환됨 - 대중 투자 제한 정책을 강화하는 계급용인과 남향정책이 실시됨 · 제3국을 경유한 대중투자 허용, 기업별 자본금에 따라 투자 상한선 설정, 고부가가치 산업, 금융 산업의 투자를 엄격히 제한함 - 양안 간 무역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11.7%로 성장세가 둔화됨
4단계 : 안정적 경제 교류 확대 (2001년 ~ 현재)	- 중국('01년)과 대만('02년)의 WTO 가입과 대만의 대중경제 교류 규제 완화로 투자와 무역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 - 대만의 전체 해외 투자에서 차지하는 대중 투자의 비중이 2005년 이후에는 70%를 넘어섰으며, 2007년에는 대만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수출 점유율은 30.1%, 수입 점유율은 12.7%를 차지함

자료 :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08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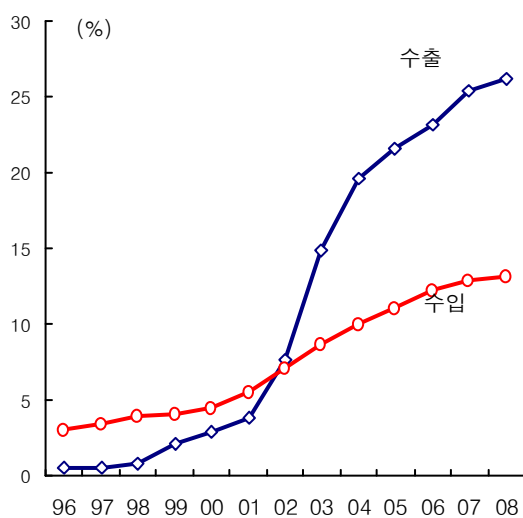
1) 중국의 3통 정책은 통상(通商)·통항(通航)·통우(通郵). 대만은 1980년에 3불 정책(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을 발표하였으나 1994년에 3불 정책을 폐지함.

2) 부문별 경제 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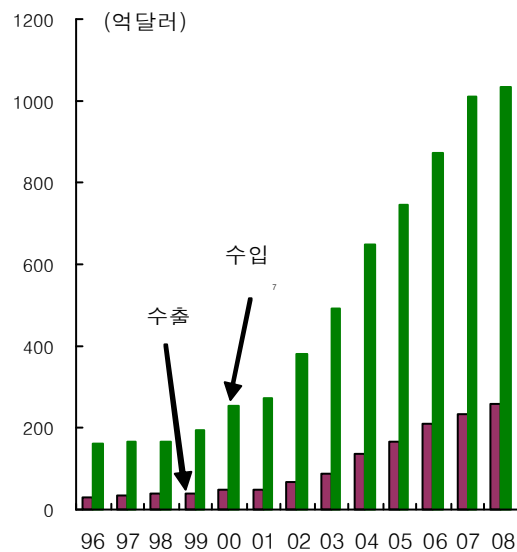
○ 무역 분야

- 중국과 대만의 교역은 급속도로 증가 추세임
- **대만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 : 대만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1996년 6억 2,1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8년 637억 7100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대만의 대중국 수입 규모는 1996년 30억 6,100만 달러였으나 2008년 300억 5,100만 달러로 증가
- **대만의 대중국 무역 비중** : 대만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는 2002년 이후 급증. 대만의 총 수출 중 대중국 수출 비중은 0.5%에서 2008년 26.2%로 증가, 총수입 중 대중국 수입 비중은 1996년 3.0%에서 2008년 13%를 차지
- **중국의 대대만 무역 규모** : 중국의 대대만 수출 규모는 1996년 28억 달러에서 2008년 259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중국의 대대만 수입 규모는 1996년 162억 달러에서 2008년 1,033억 달러로 증가
- **중국의 대대만 무역 비중** : 수출 중 대대만 수출 비중은 2% 내외, 총수입 중 대대만 수입 비중은 10%를 차지

< 대만의 대중국 무역 비중 추이 >



< 중국의 대대만 수출입 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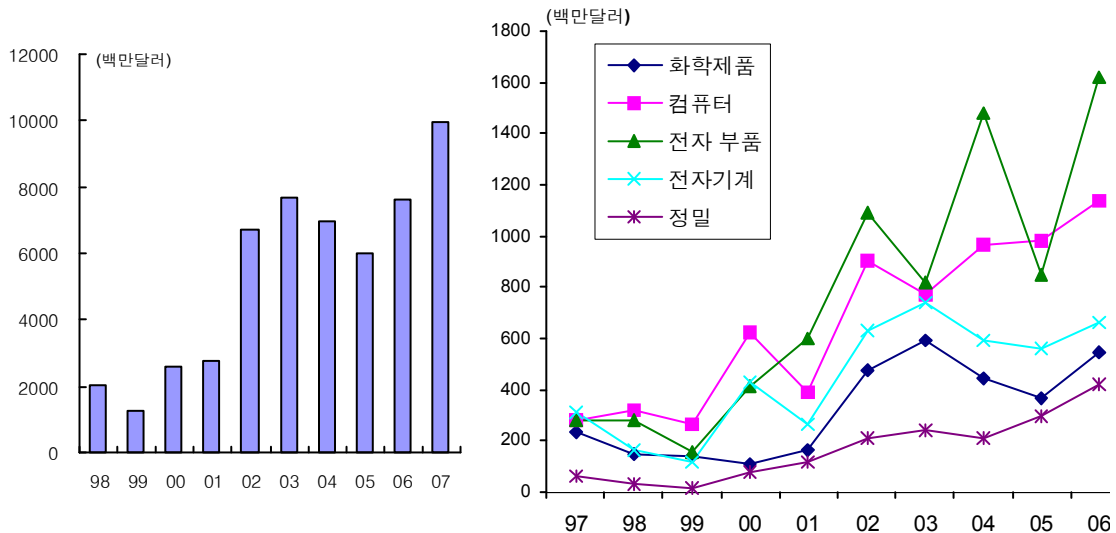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 투자 분야

- (양안간 투자 규모 확대) 중국·대만간 투자 규모도 급증 추세
  - 대만의 대중국 투자 : 대만의 총투자 중 대중국 투자 규모는 2002년 이후 급증하여 1998년 약 20억 달러에 머무르던 대중국 투자는 2007년 99억 달러를 넘어섬
  -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제조업 중 전기전자 부문에 집중 투자
  - 전자 부품 제조업의 경우 1997년에는 2억 8300만 달러 수준의 대중국 투자가 2006년에는 16억 달러를 넘어섬
  - 정보통신, 전자 분야의 투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서는 대만의 높은 기술력과 중국 현지 고급 인적자원의 결합 가능성,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용 등으로 인한 높은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
  - 중국의 대대만 투자 : 중국의 대만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는 미약하나 제3차 양안회담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중국기업의 대만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투자 분야에서는 제조업, 서비스 및 공공건설사업 등에 걸쳐 광대하게 투자 업종을 포함시킴

< 대만의 대중국 총투자 및 부문별 투자 규모 추이 >



자료 : 대만 Investment commiss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MOEA).

주 : 부문별 투자 규모 추이에서 산업별 구체적 이름은 생략함.

2) 컴퓨터는 컴퓨터, 통신, 오디오, 비디오, 전자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은 전자 부품 제조업; 전자기계는 전자기계 및 장치 제조업; 정밀은 정밀, 공학, 의학 설비, 시계 제조업임.



○ 인적교류 확대와 산업협력 증대

- (인적 교류 확대) 양안의 상호방문객은 2003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 협력으로 인적 교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중국과 대만은 '09년 5월 양국의 분단 60년 만에 공식적 인적교류 시작
  - 대만 정부는 영업, 유학 등의 목적의 1일 1,000명 내외로 제한하던 중국인의 대만 방문을 3,000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10,000명까지 확대할 계획
  - 중국은 대만에 '양안경제무역 촉진을 위한 구매시찰단'을 파견함. 이는 총 46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2억 달러의 구매계약을 체결함

< 중국과 대만의 상호 방문객 추이 >

(단위 : 천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대만의 중국 방문객	2,731	3,685	4,109	4,413	4,628	4,368
중국의 대만 방문객	1256	145	160	208	230	279

자료 :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내외신 종합).

- (산업 협력) 양안의 구매사절단 파견, 정보기술 분야 등에서 양안의 합작 기업의 부상 등으로 산업협력 증대
  - 중국은 2009년 6월과 7월에 2, 3차 구매사절단의 대만 파견이 계획되어 있고 9월까지 총 7~9차례의 구매사절단 파견을 통해 100억 달러 규모의 대만 제품을 구입할 계획(신화통신)
  -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경기부양책인 가전하향(家電下鄉)<sup>3)</sup>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저가품으로 제한,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으로 인지됨으로써 'Buy china' 정책에 따라 중국 정부가 중국 및 대만 제품의 구입 증대 예상
  - 양안의 합작 기업의 증가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및 TV 분야에서 차이완 제품의 점유율 상승 가능성 증대

3) 가전하향(家電下鄉)은 농촌 지역 거주자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해당 금액의 13%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 2. 협력 증대 배경

### ○ (경제적 측면) 양국간 상호 경제적 이익 확대를 추구

-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 기초** : 양안의 경제 협력은 상호 이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협력의 배경은 대만과 중국이 다름
  - **대만** :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으로 대중국 수출 시장 필요,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에 따른 무역 감소, 대만과 미국의 FTA체결 실패로 인한 위기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중국과 경제협력기구협정<sup>4)</sup>을 적극적으로 추진
    - ※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GDP의 64%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만 경제에 큰 타격을 가했으며 이는 대만 제1위의 무역 파트너이자 세계 3위의 경제 실체인 중국과 경제협력기구협정을 추진함에 있어 촉매로써의 역할을 함<sup>5)</sup>
  - **중국** : 역내 경제 주요대국으로서 국제적 인정과 중화 경제권내 자국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만과의 경제협력기구협정을 추진
    - ※ 중국은 동포국가인 타이완의 경제적 포용과 통합을 통해 역내에서 경제적 번영 및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협력기구협정을 통해 역내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계기로 활용
- **양안의 경제협력기구협정 내용** : 무역,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산업 및 기술 협력에 대한 기준 마련 등에 관한 협상 진행
  - 경제협력기구 협정은 물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보호, 지적소유권, 세이프가드, 경제 협력, 무역 분쟁 타협 메커니즘<sup>6)</sup>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재 각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진행 중임

4) 경제협력기구협정은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로도 표현됨.

5) Terry Cooke, "China Brief", *Journal of Analysis and Information*, The Jamestown Foundation, Washington, Vol IX(11), May, 2009.

6)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Taiwan.

- 물품무역 중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진행 중이며 중국은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무역 장벽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
  - 중국과 대만은 합작으로 산업·기술 기준을 설립하고 에너지, 철강, 통신 분야의 국유 기업들 간의 전략적인 동맹과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기업들로 발전시킬 계획
- (정치·외교적 측면) 양국의 신뢰 구축에 의한 분쟁 해소를 통해 정치·외교적 안정 추구하고 대외이미지 제고
- 양안의 신뢰구축을 위한 방법 : 대만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 방법 전환을 통해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자 하고 중국은 이러한 방법을 인정
  - 대만 : 대만은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입지 확대 전략을 국가(sovereign) 자격이 아닌 공식존재(formal status)로라도 가입하는 것으로 바꿈. 이를 통해 중국의 반대를 피하면서 국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
  - 중국 : 대만이 국가로서가 아닌 공식존재로서 국제기구 가입을 인정
  - 양안의 정치·외교적 협력 추이 : 점진적인 방법으로 중국 푸젠성(福建省), 샤먼성(廈門省)과 대만 진먼다오(金門島)와의 직항교류를 의미하는 소3통(2001년)에서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대3통(2008년)으로 진행됨
  - 양안의 접촉 주요일지 : 1992년 양안의 반관반민(半官半民) 채널이 발표한 '92 공식(共識, consensus) 외에 특별한 선언 및 합의가 없음
  - 대만과 중국은 "범죄와의 전쟁과 상호간의 사법 및 법률상의 지원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Joint Cross-Strait Crime-fighting and Mutual Judicial Assistance)"을 2009년 4월 26일에 체결

7) Hong & Tong "Taiwan-mainland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ECFA): Implications for Cross-Strait Relations", EAI Background Brief No. 452.

- (사회·안보적 측면) 중국·대만의 통합화를 통한 사회·안보적 안정을 추구
- 하나의 중국에 대한 양국의 입장 : ‘하나의 중국’이라는 공동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해석에는 양안이 차이를 보임
    - 중국 :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가까운 장래에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대만의 독립은 저지하되 장기적으로 통일에 근접하고자 함<sup>8)</sup>
      - ※ 특히 중국은 2005년 3월에 ‘반분리법(Anti-secession Law)’을 통과시켜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기본기조로 유지하는 가운데 영구분리 시도에 대해서는 비평화적인 방법 및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저지하고자 함
      - ※ 또한 중국은 대만과의 정치적 관계를 중국국공내전(Chinese civil war)<sup>9)</sup> 이후의 내부 문제로 규정하였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대만’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만 :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지를 넓히는 방법을 전환. 국제기구에서 대만이라는 국가정체성(sovcreign) 유지를 고수하기보다는 비국가 체제로라도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높이하고자 함
  - 추가적 신뢰구축 노력 : 양안 관계는 군사적 긴장감 완화 등 전통적인 신뢰구축방법 뿐만 아니라 환경, 공중보건 등 추가적인 신뢰구축방법(CBM: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을 통해 양안의 신뢰 구축 강화 노력 지속<sup>10)</sup>
    - 양안의 군사적 긴장감 완화, 특히 양쪽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상호 폐기 등을 통해 양안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신뢰회복에 기본적으로 기여
    - 이러한 안보분야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환경오염,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양안의 신뢰구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 중국의 급격한 환경오염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의한 환경규제는 양안에 유익한 것으로 전망되어 양안의 환경 분야 신뢰회복방안은 시민사회, 비정부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 ※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의 비망록<sup>11)</sup>체결로 인한 양안의 정치 불신은 공중보건 신뢰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양안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8) 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DB.

9) 국공내전(國共內戰, Chinese Civil War)은 1927년에서 1950년까지의 기간중 발생. 장개석이 주도하는 중국 국민당(KMT)과 모택동이 주도하는 중국 공산당(CPC/모택동)사이에서 일어난 내전(內戰)을 의미. 중국에서는 인민해방전쟁으로도 불림.

10) Glaser and Glosserman, *Promoting Confidence Building across the Taiwan Strait*, 2008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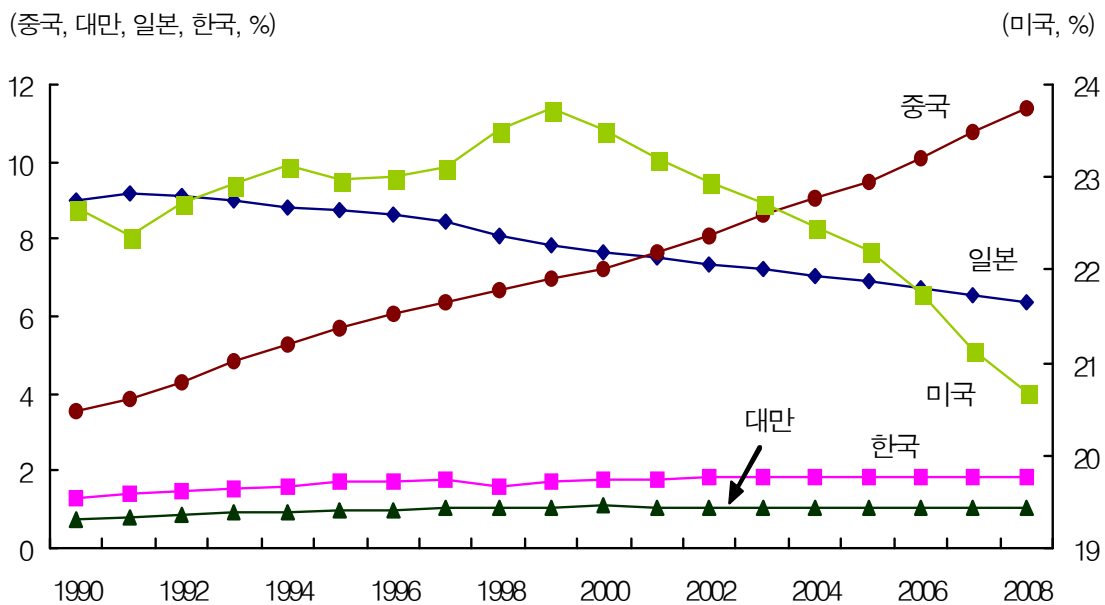
11)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은 비망록에서 다음을 합의함: 공공보건에 관한 대만과의 어떠한 대화도 중국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것; 세계보건기구의 문서에서 대만은 중국의 대만(Taiwan, China)로 지칭.

### III. 중국·대만 통합화의 파급 영향

#### 1.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화권의 실물 경제 위상 상승) 중국과 대만의 세계 GDP 비중이 급증
  - 중국과 대만의 GDP 규모 : 중국의 GDP 규모는 1993년 6,132억 달러에서 2008년 4조 4,016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중국과 대만을 합한 GDP는 동기간 8,443억 달러에서 4조 7,942억 달러로 급증<sup>12)</sup>
  - 중국과 대만의 세계 GDP대비 비중 : 중국의 세계 GDP 비중은 1993년에 4.83%에서 11.40%로 증가하였고 중국과 대만의 비중은 1993년 5.73%에서 2008년에 12.47%로 증가

< 세계 GDP 비중 >



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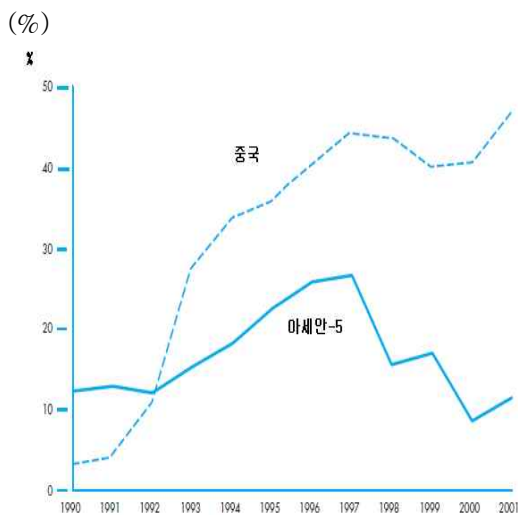
주 : 세계 GDP 비중은 PPP(purchasing-power-parity) 기준.

12) 주요국 GDP는 달러표시 현재가격.

○ (중화 경제권의 지역의 궁핍화와 아시아 통합화 진전) 중화 경제권의 확대 로 역외 지역의 대차이완 수출 감소 등으로 궁핍화가 예상되고 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화가 추진될 전망

- 중화 경제권의 궁핍화 : 중국과 대만의 무역 증가로 기타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협력 체제로써 중국의 중화경제권 확대를 유도
  - 세계 FDI의 중국 유입 급증 : 세계 FDI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증하는 반면에 아세안-5<sup>13)</sup> 국가들의 유입량 비중은 급락
- 아시아 지역 통합화 진전 : 한편 양안 경제협력은 대만과 중국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 및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WTO 가입 후 아시아 국가와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을 활발하게 체결

<총 FDI 중 중국과 아세안-5 비중>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 www.wto.org

<중국과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

무역협정	협정 발효 날짜
ASEAN-China (Goods)	2003.7.1.
ASEAN-China (Services)	2007.7.1.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APTA)	1976.6.17.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APTA) -Accession of China	2002.1.1.
Chile-China	2006.10.1
China-Hong Kong	2004.1.1.
China-Macao	2004.1.1.
China-New Zealand	2008.10.1
Pakistan-China	2007.7.1
China-Singapore	2009.1.1.
Australia - China	논의 중
China - Norway	논의 중

자료: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3)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을 포함.

○ (금융 영향력 증대) 차이완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미국 채권 보유액은 달러가치 변동 및 미국 채권 가격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해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존재

- 차이완의 외환보유고 : 중국과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2009년 5월 현재 2조 2,663억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임

< 중국과 대만의 외환보유고 현황 >

(단위 : 억 달러, %)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중국	2,156 (16.3)	4,033 (24.6)	8,189 (36.6)	15,282 (45.2)	19,460 (44.2)	19,537
대만	1,222 (41.9)	2,066 (67.6)	2,533 (71.1)	2,703 (70.3)	2,917 (74.3)	3,126

자료 :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hines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2) CRS, China's holdings of U.S. securities: Implications for the U.S. Economy, 2009년 2월.  
 3) 한국은행 DB.

주 : 1) 외환보유고 규모는 각년도 말 기준 (2009년은 5월말 기준).  
 2) ( ) 안은 외환보유고의 각국 GDP 대비 비중(%).

- 차이완의 미국 채권 보유 : 차이완의 미국 채권 보유액은 2002년 2,510억 달러에서 2008년 1조 3,547억 달러로 증가  
 · 2008년 현재 미국 채권 시장 총액 10조 3,230억 달러 대비 13% 이상을 차지

<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 현황 >

(단위 : 억달러)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중국	1,810 (4.2)	2,550 (5.2)	3,410 (5.7)	5,270 (7.7)	6,990 (9.0)	9,220 (9.4)	12,050 (11.7)
대만	700 (1.6)	880 (1.8)	1,240 (2.1)	1,260 (1.8)	1,352 (1.7)	1,210 (1.2)	1,497 (1.5)
미국의 총 채권규모	43,380	49,786	60,063	68,643	77,776	97,720	103,220

자료 : 1) U.S. Treasury Department, Foreign Portfolio Holdings of U.S. Securities, 2009년 4월.  
 2) CRS, China's holdings of U.S. securities: Implications for the U.S. Economy, 2009년 2월.

주 : 1) 채권 보유 시점은 각년도 6월.  
 2) ( ) 안은 총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

## 2.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중국 수출 경쟁 심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00년대에 들어서 대만 수출 품목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대중국 시장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큼
  - 대만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품 상위 10개 품목 중 1999년에는 일치하는 품목이 2개였으나 2007년에는 6개 품목으로 증가. 1999년 2개 품목수출액은 14억 7,280만 달러에서 2008년 6개 품목 수출액은 293억 2,930만 달러로 증가
  -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입 품목들의 유사성 증가는 중국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의미

<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 품목 비교(2007년 기준) >

SITC	대중국 수출품	순위		규모	
		한국	대만	한국	대만
871	광학장치와 기구	1	1	8166.2	12409.5
776	밸브류 및 트랜지스터	2	2	7628.6	10348.6
764	통신장비 및 부품	3	-	6981.0	-
511	탄화수소 및 유도체	4	10	4696.6	1270.4
334	중질유 및 역정유	5	-	4672.9	-
752	컴퓨터 장비	6	-	4171.5	-
759	사무용품 및 악세서리	7	9	3352.0	1365.3
513	카르복시산 화합물	8	5	2908.7	2127.4
778	전기장비	9	3	2577.2	3238.1
784	자동차 부품 및 악세서리	10	-	2175.9	-
772	전기회선장치	-	4	-	2637.4
682	구리	-	6	-	1790.4
512	알코올/페놀/유도체	-	7	-	1718.4
575	일차 플라스틱류	-	8	-	1585.5

자료 : UN COMTRADE.

주 :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표준국제무역분류)는 SITC revision 3, 3-digit.



- (양안간 관세인하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양안간 ECF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및 관세조화<sup>14)</sup> 등의 조치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의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sup>15)</sup>
- 중국의 대한국 수입 감소 : 양안간 완전 자유무역이 실행되면 중국의 대대만 수입 급등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대한국 총수입(제조업 부문) 923억 9,896만 달러(2007년)중 상당한 부문의 감소가 전망됨 <sup>16)</sup>
  - 중국이 한국과 대만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각각 9.8%, 9.7%로 비슷하나 ECFA로 인해 중국이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면 관세변화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한국산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더욱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 상위 12개 품목 중 광학 장치와 기구, 석유화학, 전기장비, 통신장비 및 부품 등 관세율이 높은 제품이 중국의 대만제품에 대해 관세인하로 큰 피해가 예상

< 중국의 대한국과 대대만 품목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 규모 >

	중국이 한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중국이 대만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 (백만 달러)
광학 장치와 기구	8.48	8.37	13,563
중질유 및 역청유	6.61	6.61	4,907
탄산수소 유도체	2.12	2.60	4,267
사무용품 및 악세서리	0.00	0.03	3,887
카르복시산 화합물	7.07	6.95	3,227
전기회선 장치	1.60	0.91	2,719
전기장비	7.68	3.23	2,476
일차 플라스틱류	7.41	7.41	1,994
구리	3.93	4.57	1,971
일차 스티렌 중합체	7.90	8.48	1,702
밸브류 및 트랜지스터	1.11	0.08	1,656
통신장비 및 부품	8.37	8.26	1,304
소계			43,673

자료 : WITS DATA, UNCTAD TR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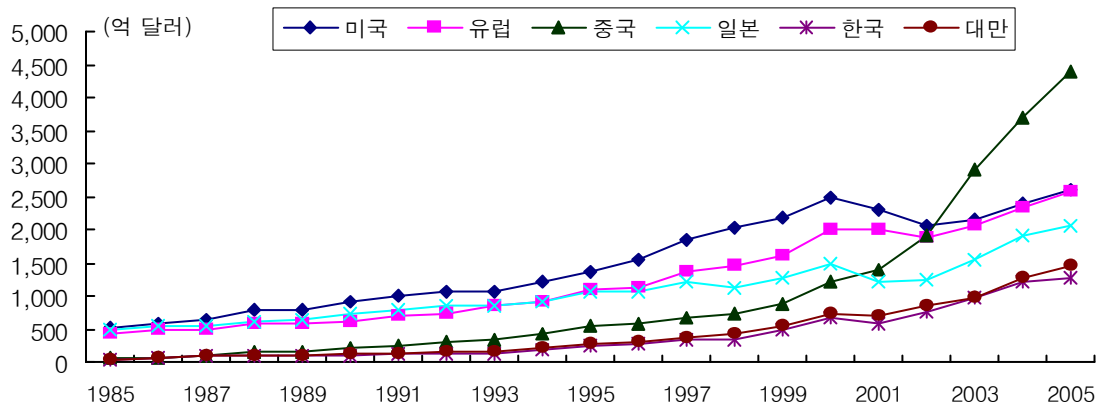
주 : SITC revision 3, 3 digit 를 이용 (단, 관세는 weighted average를 이용).

- 14) 관세조화(tariff harmonization)는 각국마다 동일 품목에 부과하는 세율이 다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각국의 세율을 평준화하고 하고자 하는 관세 인하의 한 가지 방법.
- 15)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치상으로 비슷한 규모임.
- 16) 중국·호주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완전 자유무역)로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대호주 수입이 20.3% 증가(Mai et al., "Modell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an Australia-China Free Trade Agreement", The center of policy studies, March 2005).

○ (산업 경쟁력 약화) 한국의 상대적 기술 경쟁력 저하 및 대차이완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 기술 경쟁력 약화 : 대만의 기술과 중국의 풍부한 투자 자금의 결합으로 상대적으로 한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
  -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산업 기술력을 가진 대만이 중국에 기술력을 전수함으로써 한국 제품의 기술 경쟁력 우위가 사라질 가능성이 큼
  - 또한 대만의 첨단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 중국의 기초 기술력과 결합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차이완의 기술력이 높아져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
-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경쟁력 저하 : 중국과 대만의 협력 증대로 인해 대만의 대중국 상품의 비교 우위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상품 경쟁력의 상대적 저하
  - 또한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상품 중 중복되는 제품이 증가하여 근본적으로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
  - 양안의 경제 통합으로 인한 관세인하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경쟁력 약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대만의 고기술 제조 산업의 세계 총 수출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0년 이후로 중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들을 앞서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도 큼
  -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은 고기술 제조 산업의 세계 총 수출 증가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체되어 있는 한국의 고기술 제조 산업 분야의 수출에 더욱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주요국별 고기술 제조 산업의<sup>17)</sup> 수출 규모 추이 >



자료 : National Science Board,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8*, Global Insight, Inc., World Industry Service database.

17) 고기술 제조 산업은 우주항공, 통신장비, 사무기계 및 컴퓨터, 제약업, 과학기구를 포함.

○ (금융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 중국이 한국, 홍콩 등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무역 거래시 위안화 결제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금융부문의 대중국 의존도는 증가할 전망

- 중국은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역내 금융 시장 및 세계 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음
  - 중국 중앙은행은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아르헨티나 등 6개국 중앙은행과 총 6,5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 체결

< 중국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

(단위 : 억 위안)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아르헨티나	총계
1,800 (2008년 12월12일)	2,000 (2008년 12월19일)	800 (2009년 2월8일)	1,000 (2009년 3월23일)	200 (2009년 3월11일)	700 (2009년 3월30일)	6,500

자료 : 내외신종합.

주 : ( ) 안은 체결 시점.

-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확대를 통한 위안화의 영향력 증대
  - 중국 국무원은 2008년 12월 24일 인근 교역 상대방과의 무역 거래에서 시범적으로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함
  - 중국은 무역거래에서 브라질,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위안화 결제 방안을 논의 중
  - 중국의 원난성과 광시좡족 자치구는 아세안 국가들과 교역 시 위안화 결제가 허용될 예정
  - 중국은 홍콩과 무역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2009년 6월말에 합의한 가운데 홍콩은 위안화 채권 발행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위안화의 영향력은 인근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
- 한국 무역 거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가운데 위안화 결제 비율이 높아지면 금융 부문에서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V. 시사점과 대응 과제

### 1. 시사점

#### ○ 시사점은 크게 경제적, 남북한 협력 측면에서 도출

-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 약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
  -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큼
  -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이 겹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향후 차이완 시대의 진전으로 대중국 수출 경쟁력 약화가 전망됨
- 둘째, 남북협력 측면에서 남북간 공동이익 추구 필요
  - 중국과 대만의 통합화는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결합을 통한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2. 대응 과제

#### ○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 한국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 한국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력 증대를 위한 투자 유도
  - 한국 제품의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를 통한 대만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된 상품이 필요
- 녹색 성장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 녹색 경제와 산업 부문에서의 중국과 대만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

○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 증진

- 한국·중국·대만 FTA 체결
  - 대중국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중간 및 한·대만간 FTA 체결을 통해 차이완 경제 시대 도래로 인한 수출 감소분을 만회
- 아세안과의 협력 증진
  - 중국·대만의 협력 강화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노력 증대

○ 남북 협력 상생 추구

-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한 상호 경제 이익 획득과 정치·외교·안보상의 안정성 제고
  - 중국과 대만의 협력 사례를 남북한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 활용
  - 단기적으로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조를 기본으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재통일(reunification)을 이루기 위해 정치·외교적 측면에서의 신뢰구축 뿐만 아니라 사회·안보적 측면에서의 안정을 추구
  -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한국은 중국과 대만의 정경 분리 원칙과 상호간 체제 인정 정책을 남북관계에 도입 고려

김민정 연구위원 (3669-4457, kimmj@hri.co.kr)  
임희정 연구위원 (3669-4031, limhj9@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E)
				1/4	2/4	3/4	4/4	1/4	
미국	2.8	2.0	1.1	0.9	2.8	-0.5	-6.3	-5.7	-2.6
EU	2.9	2.7	0.8	0.6	-0.2	-0.2	-1.6	-2.5	-4.8
일본	2.0	2.3	-0.7	1.4	-3.5	-2.5	-14.4	-14.2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4.0

주 1) : 2008년, 2009년 1/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7월 3일	7월 10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2.21	2.66	3.54	3.50	3.41	-0.09%p
	엔/달러	112.58	90.22	97.34	96.14	95.92	93.02	-2.90¥
	달러/유로	1.4722	1.4125	1.3190	1.4083	1.3966	1.4021	0.0055\$
	다우존스지수	13,265	8,776	7,609	8,447	8,281	8,183	-98p
	닛케이지수	15,380	8,860	8,110	9,958	9,816	9,291	-52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3.41	3.94	4.16	4.04	3.91	-0.13%p
	원/달러	936.1	1,259.5	1,383.5	1,273.9	1,266.0	1,282.7	16.7원
	코스피지수	1,897.1	1,124.5	1,206.3	1,390.1	1,420.0	1,428.6	8.6p

주 : 7월 10일 해외 지표는 전일(7월 9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7월 3일	7월 10일		
국제 유가	WTI	95.97	44.61	49.65	69.08	64.06	60.32	-3.74\$
	Dubai	89.30	36.45	46.80	71.85	66.72	61.74	-4.98\$
CRB선물지수	358.71	229.54	220.40	249.96	245.86	234.53	-11.3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